

#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62]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2. 4. 1 | 발행인 : 민무숙

## 제주지역 아동학대 현황과 부모교육에의 시사점

손태주 연구위원

### 1. 들어가며

-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에 따르면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하여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1.8.19.)
- 이번 대책은 2021년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기존의 대응체계 개선뿐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구체적으로 천안 아동 사망사건(2020.6.)과 창녕 아동 학대사건(2020.7.), 정인이 사건(2020.10.) 이후 대응체계 강화 가운데, 인천 모텔 영아 학대사건(2021.4.), 창원 계모 아동 학대사건(2021.7.) 등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 이에 따른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수립하게 됨



- 이에 정부는 2021년 1월 민법 제915호(징계권) 조항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확산,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 등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강화함. 즉, 부모와 주요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영유아기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불안정 애착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 초기대응, 부모교육 연계, 인식개선까지 대응을 더욱 세밀하게 강화함
-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학대 주요통계 및 관련 정책 및 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발생 특성을 고찰하고, 향후 체벌금지 인식 개선 및 아동학대 예방과 재학대 방지 차원에서 제주지역 부모교육에의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2. 아동학대 대응 현황

### ■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대책

- 정부는 여러 차례 대책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대응체계를 정비함
  -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및 신고의무 등이 도입된 「아동복지법」의 지속적인 개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4.1.) 이후 「아동학대 방지 대책」(2016.3.),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2018.3.),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20.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021.1.),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2021.8.) 등의 순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보다 더 촘촘히 보완해 나감
  - 대책들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위기아동 예상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보호 연계 수행체계(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2018.3~),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2020.10~), 즉각분리제도 정착(2021.3~), 보호시설 확충 및 조기발견 강화 등의 성과가 도출됨
- 공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재학대 방지 위한 보완방안 마련
  - 아동학대 위기로인에 따라 소관부처의 분절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협력·연계협력 강화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및 위기아동 조기개입 강화함
  - 학대부모의 친권에 대한 제한이 어려워 학대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해 자녀 징계권을 폐지함. 즉, 민법 징계권 폐지(2021.1.)를 계기로 자녀 체벌금지 인식개선 확산과 동시에 아동 존중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교육을 강화해 나감

### ■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학대 대응 대책

- 2022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계획」을 토대로 그간의 아동학대 관련 현황 및 향후 대책을 살펴보고자 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

● 2021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추진 현황

- 아동학대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공무원 배치(향후 15명 목표), 아동학대 조사업무 행정시별 차량 지원(2021.8.), 현장조사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행정시로 이관(2021.10.)
- 전담의료기관 지정(2021.6.3.)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거점심리치료팀 운영(2021.7.), 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설치(2022.2.4.) 등과 함께 도민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추진

표 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현황(2021.12.)

구분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시설				
				합계	아동양육 시설	아동공동 생활가정	아동일시 보호시설	학대피해 아동쉼터
합계	14	6	2	13	5	4	1	3
제주시	9	4	1	10	3	4	1	2
서귀포시	5	2	1	3	2	-	-	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2.3.).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계획.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2022.3.)

- 계획은 아동학대 재학대 예방 및 현장대응 공적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비전을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함께하는 제주’로 설정하고, 3개의 추진방향에 따른 17개 정책과제 제시

[그림 1]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대책

비전 >>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함께하는 제주	
목표 >>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안착 및 사전예방 강화	
추진 방향	정책과제	
1. 신속·적극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체계 유지 및 대응인력의 역할 정립</li> <li>▶ 아동학대 현장 대응력 강화</li> <li>▶ 아동학대 중대사건 대응체계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적 관점에서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위한 전문성 확보</li> <li>▶ 아동학대 대응 협업체계 강화</li> </ul>
2. 위기아동 조기발굴 및 사후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 실시</li> <li>▶ 고위험 아동 대상 합동점검 실시</li> <li>▶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li> <li>▶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고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아동 모니터링 강화</li> <li>▶ 재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강화</li> <li>▶ 거점 심리치료팀 운영 내실화</li> <li>▶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협업체계 내실화</li> </ul>
3. 아동학대 사전 예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li> <li>▶ 도민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전예방 강화</li> <li>▶ 다양한 채널 활용, 아동학대 예방홍보 강화</li> </ul>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2.3.).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계획.



### 3. 아동학대 발생 특성

#### ■ 아동학대 발생 현황

- 아동학대 신고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임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간한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 건수는 2016년 29,674건에서 2020년 42,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단을 통해 밝혀진 아동학대 사례는 2020년 30,905건임
  - 제주지역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 건수 또한 2019년 959건에서 2021년 1,09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는 2021년 742건임(제주특별자치도, 2022.3.)
  - 이는 아동학대 자체가 증가하였다는 것보다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홍보, 신고의무자 제도 정착 등의 효과로 의심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됨
- 피해아동 발견율 또한 학대 사례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전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6년 2.15%에서 2019년 3.81%, 2020년 4.02%로 꾸준히 증가
  - 제주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9년 5.48%에서 2021년 6.50%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
- 재학대율 역시 증가 추세로, 제주가 전국 평균에 비해 더 높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전국의 재학대 비율은 2016년 8.5%에서 2019년 11.4%, 2020년 11.9%로 매년 증가
  - 제주의 재학대 비율은 2019년 12.1%, 2020년 14.8%, 2021년 12.7%로 전국평균에 비해 높음

표 2 전국 및 제주 아동학대 통계 현황

구분	전국					제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21년
아동학대 신고건수(건)	29,674	34,169	36,417	41,389	42,251	959	859	1,097
아동학대 사례건수(건)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647	563	742
피해아동 발견율(%) (만0-17세아동인구 천 명 당)	2.15	2.64	2.98	3.81	4.02	5.48	4.84	6.50
재학대율(%)†	8.5	9.7	10.3	11.4	11.9	12.1	14.8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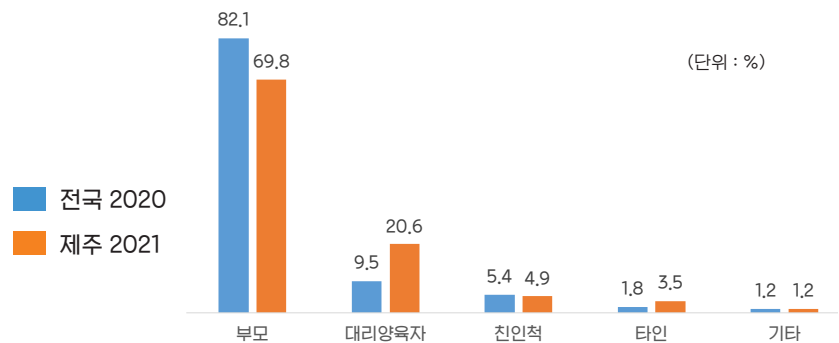
주 †. 제주지역 아동학대 재학대율은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임(2022.3월 현재).  
 자료 1 : 보건복지부(2021.8.31.).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p. 3~4. 재구성.  
 자료 2 : 제주특별자치도(2022.3.).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계획.

#### ■ 아동학대 발생 특성

##### 1.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 사례 중 2020년 기준 전국은 부모(82.1%), 대리양육자(9.5%), 친인척(5.4%) 순
  - 2021년 기준 제주는 부모(69.8%), 대리양육자(20.6%), 친인척(4.9%) 순으로 학대가 발생

[그림 2] 전국 및 제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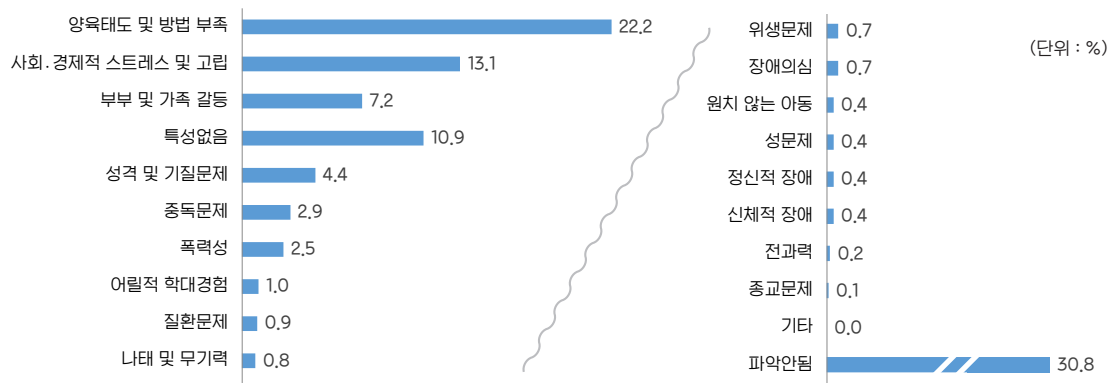


자료 1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 p.64.  
자료 2 : 제주특별자치도(2022.3.).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종합계획.

2.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

-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폭력성과 같은 성격 문제에 비해 학대의 주요 요인이 됨
  - 학대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22.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13.1%), 부부·가족갈등(7.2%) 순으로 높음(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 즉, 양육 스트레스와 갈등이 가중될 경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임, 학대 등이 우려가 됨

[그림 3]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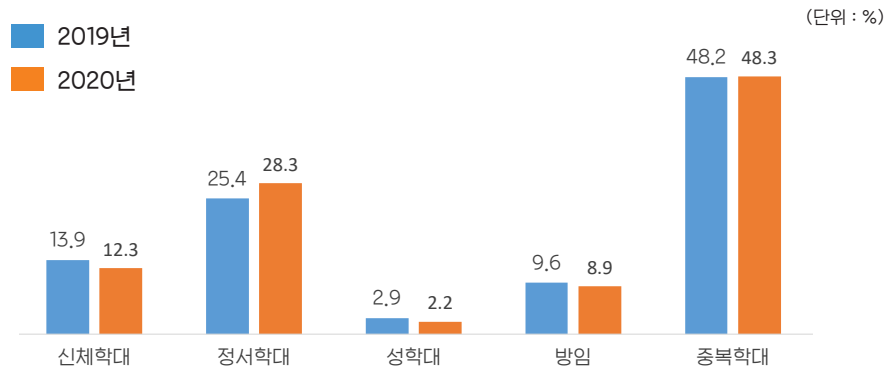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25.

3. 아동학대 유형

- 중복지대를 제외하면 정서학대 비율이 가장 높음
  - 2020년 기준 아동학대사례유형 분석 결과, 중복지대(48.3%), 정서학대(28.3%), 신체학대(13.9%), 방임(8.9%) 등의 순으로 높음. 정서학대의 경우 전년도(25.4%) 대비 2.9%p 증가함
  -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자녀 체벌 금지 인식 개선 및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이 요구됨



[그림 4]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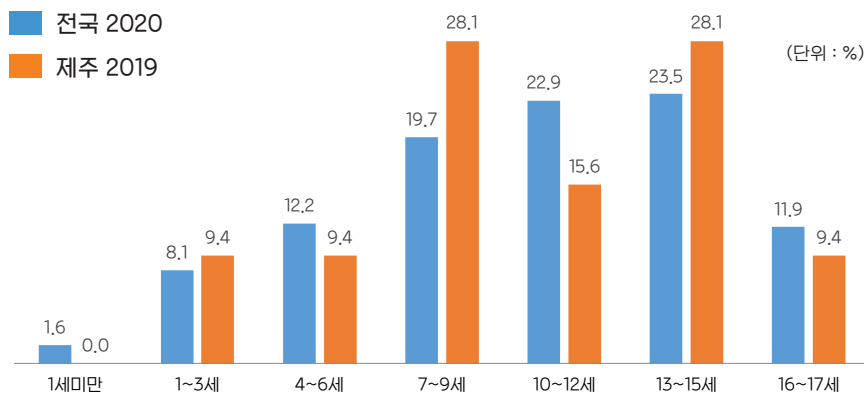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 p.63.

#### 4.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 모든 연령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되며, 특히 학령기 아동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국 평균은 13~15세(23.5%), 10~12세(22.9%), 7~9세(19.7%), 4~6세(12.2%) 순
- 제주는 7~9세/13~15세(각 28.1%), 10~12세(15.6%), 1~3세/4~6세/16~17세(각 9.4%) 순

[그림 5] 전국 및 제주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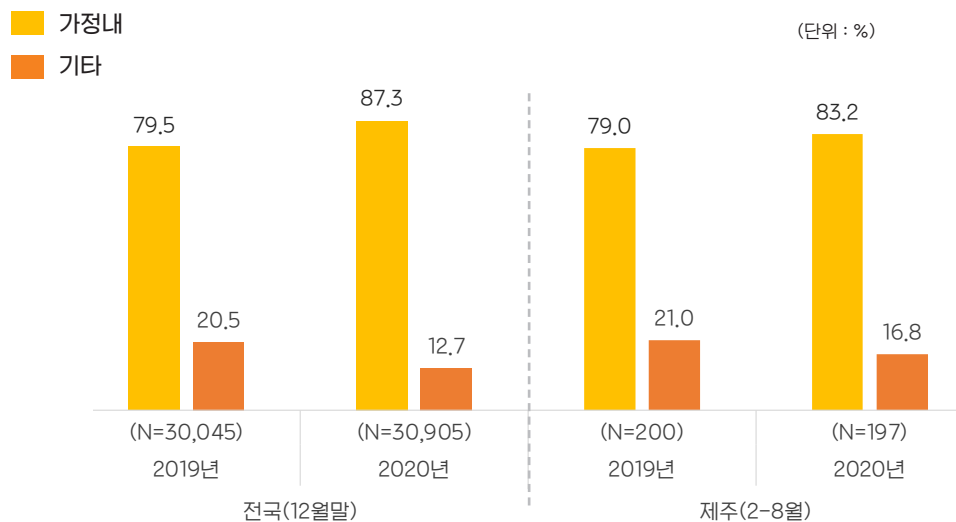
자료 1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 p.33.

자료 2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2020.5.기준).

#### 5. 아동학대 발생 장소

- 아동학대의 절반 훨씬 이상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전국의 경우는 학대 발생 장소가 가정 내 2019년 79.5%, 2020년 87.3%로 가장 비율 높음
- 제주 또한 가정 내 발생한 건수가 2019년 79.0%, 2020년 83.2%로 높고, 전국 평균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 일상 가정 내 학대가 높다는 점에서 2021년 1월 민법의 징계권 조항 폐지에 따른 자녀 체벌 금지 인식 확산 및 비폭력 아동인권 감수성 교육이 요구됨

[그림 6] 전국 및 제주 아동학대 발생장소



자료 1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 p.30. 및 보건복지부(2020).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 p.30.  
 자료 2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내부 협조자료(2020.9.28.기준, 각 연도별 2월~8월 기간 동안의 신고 건수 비율).

## 4. 논의 및 시사점

### ■ 자녀발달 이해 및 올바른 양육관 형성을 위한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 자녀의 건강한 발달은 부모도 자녀의 성장에 맞춰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양육역량도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지속적인 부모교육이 중요함
- 학대 가해자의 특성에서 보았듯 부모의 폭력성과 같은 성격문제에 비해 오히려 양육태도나 방법 부족(22.2%)이 아동학대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부모의 자녀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등의 부정 양육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모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냄
- 부모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올바른 자녀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이해와 함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양육역량 강화가 요구됨

### ■ 자녀체벌 금지 인식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아동보호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2항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학대 발생의 약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동학대사례 유형에서 보았듯 발생 빈도가 높은 정서적 학대는 자녀의 성장과 함께 지속될 수 있어 우려가 큼. 또한 제주가 전국 평균에 비해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지만 재학대율도 더 높아 민법 징계권 폐지(2021.1.)에 따른 자녀체벌 금지 인식 및 학대 위험성에 대한 인권교육이 요구됨



- 아동인권 감수성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심리정서에 공감하며, 아동의 인권 문제가 부모에게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배우는 교육임. 현재 부모의 역할이나 미시적인 양육 지식 중심의 교육과 함께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기존 인식을 부모가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인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의견 존중의 입장에서 자녀체벌 금지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의 인권교육 강화가 요구됨

## ■ 양육스트레스 완화 및 돌봄 공백 보완을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 혼자 하는 독박육아에서 함께 자녀를 돌보고 정보를 나누는 공동체 활동 지원이 필요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지적되듯이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은 아동의 발달 및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족과 부갈등 등이 주요 배경 변수로 확인됨. 이러한 요인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과도 일치하는 결과임
- 부모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하고 가족과 사회적 연대 등을 통해 자신들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며, 부모는 물론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와 양육자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놓음육아나눔터와 부모자조모임의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됨. 아동학대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한 가정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그 이유임. 나의 아이에서 우리의 아이로 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며 함께 돌봄의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건강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함

## ■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비폭력 문화 확산

- 「아동복지법」은 아동들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어른들의 의무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규정이 명시됨.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 최우선 관점에서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실현하는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자녀 양육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의 책임으로 한정될 수 없음.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해 부모를 포함하여 여타 성인들이 함께 양육과 돌봄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학대행위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모이고 다음 순으로 어린이집 및 유·초·중·고교 교직원, 아이돌보미 등의 대리양육자임. 따라서 민관 협력으로 제도 개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아동존중의 인식개선 캠페인 및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 홍보가 요구됨

